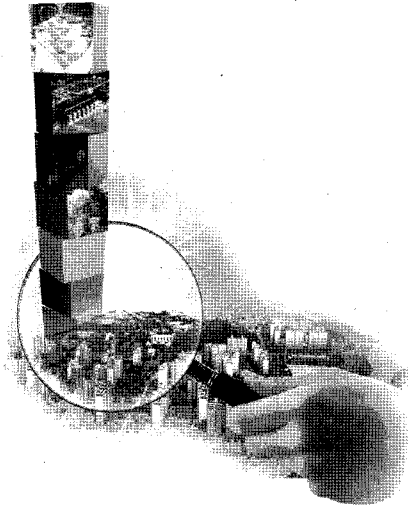


## 외인투자가 밀착지원



지식경제부는 방한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유치 성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8월부터 레드카펫(Red-Carpet)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드카펫 서비스는 투자규모와 국내산업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 투자를 선별하여 공항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을 떠날 때까지 외국인투자의 국내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입국수속지원과 출입국시 차량만을 지원하는 '기본서비스'와 Project Manager의 수행, 통역제공, 정부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투자상담과 산업시찰 주선 등 방한 숲 과정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단기간내 투자현실화 가능성과 투자의 파급효과 등에 따라 투자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향후 투자지역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

자의 한국 체류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여 투자를 감동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투자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레드카펫 서비스의 주 목적이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투자방향을 가지고 訪韓 하더라도 투자지역 물색, 유관기관 방문 등이 어려워 투자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레드카펫 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하는 고도기술 보유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등 투자유치 필요성이 높은 외국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정부는 KOTRA 내 Invest Korea(IK)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FEZ, 대사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레드카펫 서비스 대상을 수시로 추천받은 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IK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총 40회 정도의 레드카펫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레드카펫 서비스는 투자자에게 감동을 주어 투자 성사율을 제고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 제공 대상자 추천과정을 통해 외국대사관 등 유관기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그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운영, 외투 기업 常時 애로해소 시스템 등 이미 한국에 진출한 기업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외투기업 지원을 투자결정 前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하여 투자자 지원 全 과정을 완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외 투자유치 IR'이 한국에 대한 투자관심을 처음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면, 레드카펫 서비스는 그 관심을 실제 투자이행으로 이끄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가 레드카펫 서비스를 살펴보면, 추진 배경으로 訪韓 투자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한 경쟁국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원내용에서 기본서비스로 입국수속 지원, 차량

지원, 프리미엄서비스로 기본서비스 외에 Project Manager 수행, 투자 상담 및 산업시찰 주선, 공항 영송 등 필요사항이다. 방한투자자의 지위 및 방한 목적에 따라 상기 지원내용을 차등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고도기술 보유, 대규모 고용창출 등 고부가가치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외국기업의 임직원이다.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급 이상으로 한정하되,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방한하는 투자자는 제외된다.

중앙부처, 지자체, FEZ 및 주한 외국기관(대사관, 외국상의 등)에서 추천하는 투자자에 대해 Invest Korea에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비스 개시시기는 '10. 8월부터이고, 기대효과로 방한투자자의 만족도 제고로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FEZ, 주한 외국공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잠재투자가 발굴을 확대하는 것이다.

